



동심 속 봉송아 꽃물들이기 추석 연휴를 앞둔 28일 북구 효령동노인복지타운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할머니들이 추억의 봉송아 물을 들여주고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미소가 보름달처럼 환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넉넉한 한가위 제대로 쉬고 새 희망 담자

10일간의 긴 추석연휴가 시작되었다. 오랜만의 넉넉한 휴식이다. 잠시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일상에서 떠나 여유를 찾아도 좋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의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다. 가속도가 붙은 삶은 끊임 없이 계량화되고 수치화된다. 한눈을 팔았다간 모든 게 뒤죽박죽되기 일쑤여서, 정교하게 시스템화 된 일상은 점점 속도를 강제한다.

지난여름은 몹시도 힘들었다. 피약별은 오래도록 맹위를 떨쳤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많았다. 누군가는 일지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야 했다. 누군가는 갑질의 희생양이 돼 오랫동안 모멸감을 감내해야 했다. 지난여름은

힘든 여름 견디어낸

눈부신 가을빛 산하서

가족과 여유의 시간을

힘겹고 쓸쓸한 시간들이어서, 눈앞에 펼쳐진 가을의 그림자는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은 시나브로 물들어가고 있다. 남도의 가을이 피워내는 빛깔은 색노랗다. 물과 흙이, 해와 바람이 베푼 은전은 가없고 넉넉하다.

불어오는 바람에 들녘은 수련거리는데 이 물결과도 같은 일렁임은 사색스럽지도

요란하지도 않다. 깊고 고요한 떨림이다. 벼는 벼끼리 어깨를 겹고 하오의 시간을 견딘다. 무정한 시간은 우리들에게도 견딜 수고를, 지나온 삶의 흔적을 말없이 보여준다.

마카루에 오아신(Miracuyey Oyasim)! 인디언 어느 부족의 인사말이다. '우리 모두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유기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너와 나는, 산과 바다는, 그리고 땅과 하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풍경에 깃들여 있는 피사체이다. 그러므로 저마다 고개를 숙인 나락들은 겸손하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섭리는 배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은 무정한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체득된다.

영문학자 김옥동 교수가 쓴 '인디언의 속삭임'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빅틀라우 드라는 추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을 준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다. 이번 연휴에는 누구나 여유를 누렸으면 한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에서 한 발짝 비켜서서 온전한 휴식을 말이다. 우리 모두의 추석이 저마다 여유로운 쉼의 시간이기를 기도한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추석 보름달

구름 사이로 '빼꼼'

1~2일 귀성길 비바람

연휴 기온 평년보다 높아

추석 연휴 날씨	30(토)	10 / 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맑음	흐리고 비	비온뒤 갠	구름 많음	구름 많음	맑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을 추석 연휴엔 가족들과 함께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달 1일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뒤 다음날인

2일 그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후부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야외활동 하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인 4일은 완연한 가을 날씨 속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연휴기간의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평년(23~25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다음달 2,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 때 전해상의 파고가 높지 않아 귀성·귀경길엔 큰 지장이 없겠다는 게 기상청 측의 설명이다. /김한영기자 young@

지방선거 승패 가른다 정치권 추석민심 잡기

민주 "호남 지지 개혁 성공"

국민의당 "패배면 존립 위기"

입지자들도 주민 접촉 활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은 추석 민심 잡기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을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이어서 이번 에 형성된 민심은 과거 추석 연휴에 비해 강한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추석 민심이 연말·연초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연휴 기간 동안 대민 접촉을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추석을 계기로 지방선거 열기가 조기에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호남이 개혁 정권을 밀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호남의 강력한 지지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연결된다는 점을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의 프리미엄을 얹고 '호남 발전론'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정 등에 포함된 호남의 미래 현안들을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시스템'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추석 민심에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호남 쟁기'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지율에서 현재 민주당에 뒤처져 있지만 후보만 잘 세운다면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당의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최대한 가동, '호남 민심 되찾기'에 총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당도 '적폐 청산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염원하는 호남 민심에 가장 잘 부응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호남 지지 기반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기반이 취약한 보수 야당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지역에서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은 차분한 흐름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약단체장과 단체인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역량'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의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민주당과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호남 구애에 나서는 '황금 구도'를 잘 활용, 지역 발전을 이끌 책임자를 찾아내려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골든타임이 흘러가는데도 현역 단체장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도 높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추석 민심의 화두가 '인물의 역량'과 함께 '새로운 변화'로 접질릴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추석특집 지면 안내

지방선거 누가 뛰나	▶ 2~5면	한가위 책과 함께	▶ 21면
추석연휴 건강관리	▶ 8면	추석연휴 TV	▶ 23~25면
가볼만한 광주·전남 명소	▶ 12면	한가위 극장가	▶ 27면

추석특집 32면 발행...10월 3일~9일자 휴간

2017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2017 THE AUTUMN FESTIVAL IN FRESH WANDO ISLAND

• 일시 2017. 10.27. (금) - 10.29. (일) 3일간
• 장소 완도해변공원 / 완도타워 / 완도수목원 / 청산도 일원

• 주최·주관 |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